

한국문학 전통 교육을 위한 ‘전통’ 개념의 고찰 — 흥(興)을 중심으로

류연석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수료

- I. 머리말
- II. 기존의 '전통' 개념에 대한 비판적 재고
- III. 문화의 성격을 통한 전통의 재개념화
- IV. 한국문학 전통·문화로서 흥(興)의 검토
- V. 맺음말

I. 머리말

최근 들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전통을 둘러싼 대립과 논쟁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관련 논쟁들을 보고 있자면, 국어교육에서 전통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고전문학교육의 연구자로서 우리의 문학적 전통은 학습 세대에 바람직하게 전달이 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 한국문학의 전통교육이 꽤 오래 이루어져 왔음에도 현재 학습자들에게 문학적 전통은 다소 고루하고 '나와는 관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추세이다. 이는 문학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 저하도 있겠으나, 특히 근대 이전과 이후의 생활양식이 상당히 이질적인 우리의 역사적 배경과 수준 높은 전자매체 환경을 기반으로 디지털 생활양식에의 친밀감이 더욱 빠르게 커지는 현대 사회를 고려하면, 일견 어쩔 수 없는 추세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전통교육의 부족함을 단지 사회적 환경과 학습 세대의 수용의 차원에서만 문제의 원인을 찾아선 안 된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지고 있지만, 학습 세대에선 한국문학의 전통이 어떠한 성격으로 묶이는지, 지금에 어떤 소용 가치가 있을지 명확히 인식되지 못한다. 또한, 그 전통의 체

힘 기회 역시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것 역시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을 교육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과연 ‘전통’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음에 기인한다. 이를 고려할 때 전통교육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기반으로 미시적 방법의 교체나 문학 외적인 사회 추세의 분석보다는, ‘전통’의 개념을 우선 명확히 설정함이 필요 하리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문학 전통교육의 발전적 논의를 위한 첫걸음으로 그간 사용되어 왔던 전통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문화’를 중심으로 전통을 재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때 문화란 전통을 감싸는 거시적 개념이 면서 동시에 교육적으로도 오래 연구되어 왔기에 전통의 재개념화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판단하였다. 문화의 성격에 기대어 전통은, 공시적-통시적 인 면모가 동시에 고려되는 입체적인 개념이자 지속적으로 실천되는 개념이 된다. 이렇게 전통을 재개념화할 때 전통교육은 이미 전통이라 공인(公認)된 요소를 학습자가 수직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의 실천을 동원하여 전통의 가치를 재구성하는 교육으로 발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우선 재개념화한 전통을 “전통·문화”로 명칭하는 가운데, 그간 한국문학의 전통 요소의 하나로 오래 자리해 온 ‘흥(興)’을 전통·문화로서 재 조명함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기존의 ‘전통’ 개념에 대한 비판적 재고

한국문학 전통교육의 발전적 논의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핵심은 ‘전통’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문학의 전통 혹은 전통교육 논의에서 ‘전통’을 사용하는 의미 맥락을 보면 전통은 주로 한국인이 공유하는 어떠한 특질을 가리키면서, 모종의 가치로 전승되며 때론 변화·적

용하는 대상으로 다루어진다. 전자는 한국문학의 유구하고 특수한 ‘무엇’이라는 내용적 부분을 가리킨다면, 후자는 전통을 어떻게 다룬다는 주로 철학적 배경에 기반한 성격적 부분을 가리킨다. 하지만 ‘무엇’으로서 논의된 각 전통들은 ‘한국문학의 어떠한 점’이란 구심이 없이 단지 ‘한국문학에 있었다’라는 매우 기본적인 전제만 공유한다. 또한 전승·변화 등의 말은 으레 그러하다는 일반적·추상적 차원에 머무른다. 교육적으로는 교육내용으로 자리하는 특질들은 상당히 개별적·파편적이고, 전통의 전승·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학습자의 역할 및 실질적 수행은 불명확하다. 이는 결국 전통에 대한 학습자의 거리감을 유발할뿐더러 구체적인 전통교육의 체계를 재구성함에도 걸림돌이 된다.

내용적 부분으로서 ‘특질’은 1970년대 활발히 이루어진 실증연구를 통해 확보되었는데, 그 배경엔 두 차례의 전통론 논쟁이 있었다. 첫 번째 논쟁은 1930년대 국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가운데 한국문학에 자생적 연결고리가 없음을 주장했던 학파로부터 전통 단절론이 제기되었다(최원규, 1983: 249).¹⁾ 1960년대에 이어진 두 번째 논쟁에선 이전의 (서양)이식문화론, 전통 단절론을 극복하고자 접합(接合)론이 제시되었다(성기옥·김수경·정끝별·엄경희·유정선, 2004: 46).²⁾ 하지만 전통이 보편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의 이론적인 협의가 부족한 채 단절·접합부터 말했던 것은 무의미하며, 특히 접합론에서 주장한 이어지는 ‘실체’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밝혀놓지 못했기에 단지 단절론에 대한 피상적 반론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최원규, 1983: 249-251). 이에 1970년대에 접합론을 보충하여 한국문학의 특질이라

-
- 1) 1930년대 논쟁은 국학과, 해외문학과, 국민문학과(일본문학과)로 나뉜다. 이 중 해외문학과는 한국문학에선 자체적으로 전통을 찾아볼 수 없음을 강조하며 전통 단절론을 주장했고, 서양문학을 숭배하는 기조를 보였다.
 - 2) 전통 단절론의 기저엔 우리의 근현대문학 태동이 서구로부터 이식된 것이란 관점이 함께 있다. 1960년대 전통론은 이식문학론을 극복함과 동시에 자생적 발전론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섞여있다(성기옥 외, 2004: 46).

할 만한 실체를 확보하려는 실증연구가 이어졌다. 문학 외적인 사회·역사 분야에서 배경을 확보하면서, 한국문학의 특질을 문학 텍스트를 통해 제시함에 주목했고 특히 고전 텍스트를 중심으로 특질과 그것이 형상화되는 양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어졌다(권대광, 2017: 10-11). 이를 통해 한(恨), 흥(興), 은근/끈기, 해학/풍자, 자연친화적의식, 여성적 어조 등의 특질 항목들이 저마다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의 이면에 ‘한국문학의 전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 특질을 확보하자.’라는 이데올로기적 목적이 자리했기에, 한국문학의 특질들을 묶을 수 있는 구심점에 대한 논의 없이 상이한 특질들이 각자의 논리에 따라 보증되어 혼재해왔다.

때로 한국문학의 특질은 정전으로서 문학 텍스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특정 수사법이나 작품 구조와 같은 문학적 요소로 연결되기도 한다. 혹은 작품의 창작 동인이나 배경이 되는 문학 외적인 사회·역사적 배경에 가깝기도 하다. ‘~하는 것’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면서도 ‘~해야 한다’는 식의 받아들여야 할 가치관·태도이기도, 때론 경험이기도 하다. 이에 특질들을 가르치는 체계를 명확히 하기 힘들다. 따라서 각각의 특질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검토해 몇몇 특질들을 합치는 등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문제점은 언뜻 당연해 보이는 전승·변화라는 전통의 성격적인 부분에도 존재한다.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전통의 일반적 성격의 철학적 배경은 주로 가다머(Gadamer)의 전통에 관한 기술에 기반한다. 가다머는 이전의 계몽주의에서 전통을 참다운 이성 발현을 방해하는 부조리로 보았던 것을 반박하며, 전통을 해명하고 복원을 주장했다(김동현, 2013: 28). 가다머에 있어 의미는 텍스트 원저자의 의도나 과거의 복원에 종속되지 않는다(Warnke, 1987/1999: 136-137). 그렇다고 텍스트를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에 치우치지도 않는데, 이때 현재 우리의 해석에 행사되는 영향력으로서 전통의 역할이 제시된다. 인간은 언제나 역사적 전체로서 전통에 던져져 있으며, 이에 우리의 해석 역시 전통의 영향을 받아 주관에 치우치지 않고 역사로 포섭된다

(Warnke, 1987/1999: 145-146). 단, 전통은 “과거에 존재했던 대로 자연스럽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긍정하고 가꾸고 돌볼 때에 비로소 전승되는”(Gadamer, 1960/2012; 김동현, 2013: 28-29 재인용) 것인데, 이는 우리가 텍스트로부터 전통을 반조(反照)하지만 그 전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기에 우리의 지평과 융합해 해석하고 이해하고, 실현해간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전통이 ‘가꾸고 돌보아진다’는 것을 취하고, 이를 통해 전통의 변화·적용이 유추된다. 하지만 이처럼 간단하게 전승 내지는 변화·적용이란 말을 문제 없이 보편적인 의미로 취할 수 있는가.

가다머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전통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자체를 필연적으로 보아 전통의 영향 아래 놓이는 우리가 전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을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다(김동현, 2013: 22; 최고원, 2009: 390).³⁾ 그렇다면 전통의 변화·적용은 전통을 긍정하는(正) 전제에서만 이루어지는 국소적 차원에 제한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反) 가운데 일어나는 작용은 배제된다. 아울러 가다머의 전통은 해석학 논의를 중심으로 파생된 내용이라, 근본적으로 텍스트를 전제하는 테두리를 벗어나기 힘들다. 이는 전통을 직접적이고 생생한 일상경험에 가까이 두기보다는, 텍스트의 울타리에 가둔다.

우선 긍정이 전제된 가운데 전통을 이해하는 행위는 그 변화·적용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만약 모든 전해지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다면 전통의 긍정 역시 판단에 근거한 것인데, 이 판단을 누가 내리는가를 묻는다면 그는 텍스트로부터 전통을 발견하고 긍정적 영향을 취해 자신의 지평과 융합할 수 있는 엘리트·전문가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일반 대중(학습자)은 이미 긍정이 공인(公認)된 전통을 제한적으로 소비하는 차원에 머물고 혹은 더 나아가 전문가들이 가꾸고 돌본 전통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

3) 가다머를 비판한 하버마스는 ‘이해함에 대한 선입견의 작용이 절대적’이라 보아 그 위상을 정당화한 가다머에 대해, 그 작용이 정당한가의 물음을 구분하면서 실천의 측면에서 부정적 시선을 던진다.

다. 이때 주어진 전통에 의심이나 비판적인 반응이 생성되었을 경우 자칫 잘못된 반응으로 취급되어, 이것이 역으로 전통을 다시 절대시하고 그에 대한 수용자의 거부감을 낳을 수도 있다. 아울러, 긍정이 강제될 경우 전통이 형성되고 전승되어 온 역사적 양상들이 뒤로 물러나고, 의도와 달리 전통은 그것이 전통이라는 그 자체만의 당위·위상으로 피상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전통의 (적용)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텍스트에서 확장하여 일상 생활 차원에서의 전통의 영향력이나, 해당 전통을 가꾸고 돌보는 실천의 모습은 사실상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최고원, 2009: 392).⁴⁾ 이때 문학 전통이라면 당연히 문학 텍스트를 통해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게 생각될 수 있겠으나, 앞서 보았듯 한국문학의 특질이란 것들이 전부 문학 텍스트 안에서만 그 작용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라 보기 힘들다. 일종의 가치관이나 태도로서의 특질은 문학 텍스트 내부를 넘어서 일상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삶 속에서 실현(행)될 때 분명 가치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문학교육 역시 텍스트의 전문적 해석을 넘어서서 생활세계로의 확장·적용을 지향한다고 할 때, 전통의 전승 및 변화·적용 역시 단지 텍스트 안의 차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육적인 면을 볼 때, 현재 교과서에서 전통교육을 구현하는 방식은 각기 다른 성격의 특질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과거 정전에서 이들을 확인하거나 현대의 다른 매체·텍스트에서 찾아 연속성을 부여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류수열·김세림·김형석, 2018: 34-37). 하지만 역시 각 특질들은 구심적인 점 없이 독자적으로 다뤄지고, 덧붙여진 활동은 텍스트 간 혹은 장치(화자, 표현법) 간의 확인·비교에 머무르는 등 텍스트 해석·비교의 차원에 머무른다. 여전히 암묵적으로 ‘당연히 전통이니 가르친다.’ 내지는 ‘우리 전통이니 마땅히 이어진다.’라는 점에 안주하여, 공인된 연구가 많이 진행된 몇몇 특질을 가려 뽑아 텍스트 안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란 생각이 지

4) 가다머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 중 또 하나는 철학의 실천적 측면에 대하여 가다머의 해석학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기, 방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배적인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을 되돌아보기 위해 전통의 개념에 있어서부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설정할 수 있다.

‘한국문학의 전통’의 개념은,

- ① ‘한국문학의 어떠한 것’으로서 특질들에 구심점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특질들의 성격·작용 등을 정리할 수 있는가?
- ② 전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전제하지 않고, 보다 다각적인 자세로 접근할 수 있는가?
- ③ 문학 전통이지만 그 적용이 텍스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전체적인 일상, 삶의 차원으로 확장해 실현될 수 있는가?

즉, 이는 전통의 재개념화를 통해 위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로써 전통교육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전통과 자주 함께 쓰이는 ‘문화’라는 용어가 가진 수월성을 통해 다소 교조적이던 전통교육의 필요성·당위를 재정립하는, 문화교육으로서 전통교육을 논의하는 연구들이 있었다(권대광, 2017; 박남희, 2007). 본 연구도 상대적으로 전통에 비해 교육적으로 꾸준히 연구가 쇄신되어 온 ‘문화’를 통해 전통을 재개념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단순히 ‘전통=문화’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기대어 곧장 둘을 연결해선 안 된다. 특히 교육적으로 문화 연구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그 내용들이 앞서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어떻게 전통을 재개념화하는 것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III. 문화의 성격을 통한 전통의 재개념화

1990년대 이후 인문 사회 영역에서 문화에 주목하고 여러 요소 및 현상

들을 문화적 관점으로 분석함에 따라 국어교육에서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었다. 특히 문화의 핵심인 언어를 중심으로 국어문화, 대중의 언어문화 및 관련 텍스트가 주목받았고, 문학에서도 문화론적 접근이 이루어졌다(박은진, 2015: 139-140). 문학에서의 문화론적 접근은 문학을 언어활동의 정수로 보는 가운데, 문학 활동을 문화 전승이나 형성 차원으로 확대하고, 문학 텍스트를 문화적인 산물로 보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진다(박은진, 2015: 140). 문화론의 기본은 사회의 다원화가 일어나고 행동 주체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종래의 방식으로 분석할 수 없는 변화된 현상에 접근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문학에서도 종래의 작가, 텍스트 위주의 접근방식을 벗어나 문학의 대상 및 인식을 넓은 범주로 확장하고 구체적 현상, 행동을 강조하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조성면, 2001: 52).

하지만 문학에서의 문화론적 접근 역시 주의할 점들이 있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주의를 벗어나 여러 컨텍스트로 문학의 외연이 확장되는 것은 자칫 거꾸로 문화 연구의 도구로 문학을 전락시킬 위험도 있다. 가령 고전문학 연구에서 기존의 문헌 중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론적 접근을 통해 고전문학 속의 다양한 문화 양식을 밝혔지만, 이것이 단지 민족문화의 확보를 위해 고전문학을 도구로 활용했을 뿐이란 비판적 평가도 뒤따른다(조성면, 2001). 중요한 점은 종래의 접근방식이 마련한 문학의 고유한 특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그를 토대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이해 및 습득을 넘어 문화적 맥락의 문학적 활용을 이어 살필 수 있어야 한다(윤여탁, 2016: 156). 즉, 문화로서 한국문학의 전통을 재조명할 때에도 해당 전통 요소가 어디까지나 ‘문학적’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문화란 용어는 그 범주가 매우 크지만 전통의 재개념화를 위한 문화의 성격을 살피기 위해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문화를 다뤄 온 문화적 문식성의 논의에서의 문화를 살필 필요가 있다. 문화적 문식성은 문화가 교육되는 것이란 전제에서 출발하기에, 교육 맥락에서 문화의 성격이 어떤 변화를 이루었으며 그로부터 전통의 재개념화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살피기 용이하다.

문화적 문식성 논의의 기원은 허쉬(Hirsh)와 같은 1970년대 보수적 교육론자들의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허쉬는 미국에서 자유주의 교육진영의 교육적 시도가 오히려 학습자들의 사회화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 능력의 미비를 낳았음을 비판했다. 이에 미국인이라면 응당 사회화를 위해 알아야 할 본질들을 찾아 리스트화해 교육하고자 했다(박인기, 2002: 6-7). 그의 교육관은 다분히 기성 사회로의 정상적인 진입을 위한 것으로, 이때 알아야 할 지식으로서 문화의 목록에는 고전적인 텍스트에 기반한 것들이 꽤 포함되었다. 이는 사회화를 위한 모범적 문화 지식이란 곧 해당 사회에 오래 공유되어 그를 대표할 만한, 영향력이 큰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즉, 초창기 문화적 문식성의 제기 단계에서 문화란, 기성사회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필히 알아야 할 문화유산(遺産)과 같은 것들을 의미했으며, 그러한 문화를 지식으로서 습득할 것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문화란 것이 언제나 같은 진리적 형태로 고정되지 않고, 그렇기에 문화를 지식으로 읽기 곧장 현재에의 사회적 적용으로 전이되진 않았다. 일반 대중들은 지식으로 습득한 문화를 사회에서 활용하는 것을 따로 필요로 했으며, 이에 문화적 문식성은 문화의 현재에 적용·활용된다는 성질에 주목해 그 활용태를 살피고 활용 능력을 확보함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문화의 양태란 통시적(수직적)인 것과 공시적(수평적)인 것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시대를 거듭하여 집적되어 지적 도야를 통해 습득되는 문화를 가리키는 한편, 후자는 지금·현재에 활용·적용되는 문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인기, 2002).

이처럼 현재적 양태로서의 문화 의미가 관심을 갖게됨에 따라 그 교육역시 하강식의 수직선의 연장보단, 지금 현재-점(點)에서 그어지는 수평선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지식으로서 교육내용의 확보 외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한 교육활동을 설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특히 고전문학교육에서도 과거성과 텍스트의 위상을 중심으로 문화적 요소들을 전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그들을 현재적으로 적용한 양상을 탐구하거나 적용하는 활동을 설계

해보려는 논의들이 생산되었다.

이들은 고전텍스트 속에서 발견한 문화적 가치가 현대의 매체, 텍스트에 활용되어 실린 양상을 살피거나(황혜진, 2005), 어떤 고전문학 갈래 자체가 문화적 가치가 있을 때 이를 제재·주제로 한 현대의 문학적 생산물을 분석해 그 가치를 전달하거나(서유경, 2009), 교육적으로 문화의 활용·적용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학습자에 주목해 그들이 생산한 고전 변용 텍스트에서 문화를 분석하는 방향(서보영, 2014) 등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고전은 고전답게 전수하려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서, 고전에서 찾은 문화 요소들이 현재에도 활용되는 모습에 주목해 연속성을 증명하고자 한 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위 연구들 역시 고전 속 문화적 가치는 이미 특정하여 상정해둔 상태에서 논의가 출발한다는 한계가 있다. 문화에 있어서 여전히 지식은 과거성을 강조해 특정해두고 현재성의 확인을 위해 활용을 덧붙이는 관점은, 문화의 두 양태를 이분화하여 입체적으로 조명하지 못한다. 이에 문화란, 현재뿐 아니라 특정 시대에 역시 당대에는 공시적으로 활용·실천되었던 것이란 점에 주목하여 시대별 문화 주체의 문화적 실천과 공유를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때 문화적 문식성을 학습자의 문식 자원의 공유 및 확장 능력으로 정의하고, 그 ‘공유 모델’ 확보의 중요성을 주장한 논의도 있다(박은진, 2015). 실제로 해당 연구자는 중세 사대부 여성의 특정 문화적 지식 공유 사례를 분석하여 ‘공유 모델’ 구현을 위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였다(박은진, 2018).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문화란 각 시대별로 주체들에 의해 실천되는 가운데 그 의미가 평가·공유되는 지속적인 현재성을 가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문화란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고정된 명제만도 아니고, 특정 시대(특히 현재)의 활용태만이 그 전부를 가리키지도 않는다. 문화는 항상 공시적으로 활용되면서 동시에 통시적으로 누적되어 간다. 문화는 수직-수평의 교차가 촘촘히 누적된 면(面)의 확장이란 성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가 면으로서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는 그 쌓여온 면적들을 습득함과 동시에 우리도 문

화 주체로서 문화를 실천하고 공유하여 면을 확장해간다. 그렇다면 면으로서의 문화가 한국문학 전통의 재개념화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전통은 단순히 ‘오래 이어져온 것’의 의미를 더해지면서 문화란 말과 합쳐지는데(전통문화), 여기엔 오래된 것은 어련히 가치가 있을 것이란 암묵적 전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오히려 문화의 성격에 따라 전통을 재개념화할 때 위의 전제는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문화로 보았을 때 가다머에서 내세웠던 전통은 초창기 문화적 문식성에서 상정했던, 기성 사회에의 성공적 진입을 위해 알아야 할 지식으로서 문화에 근접한다. 허쉬는 사회적 의사소통에의 참여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이는 지금에의 사고(思考)나 의사소통에 필연적 영향을 강하게 끼치고 있는 무언가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가다머의 전통론과 닮아 있다. 문화 지식의 역할은 그것을 습득하도록 하여 통시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의 전승흐름(영향의 흐름)에 현대인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한편 문화 지식의 현재적 활용에 주목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는 전통을 ‘가꾸고 돌보는’ 행위와 연관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직접적인 실천과 이어진다고 보단, 이미 가꾸고 돌보아진 결과를 특정하고 이를 텍스트 등을 통해 연속성을 확인하고 ‘가꾸고 돌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주지시키는 정도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문화는 그것이 실제 행해지는 실천성이 주목받으며, 각 시대의 공시적 실천·공유 현상이 일종의 모델을 형성하며 통시적으로 이어지는 성격을 띤다. 이러한 문화는 전통 개념에 더 나은 점을 시사해주는가? 우선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체 혹은 활용태의 실체적 결과물로서 절대적인 위상을 갖던 텍스트에서 텍스트 외적 차원의 실천·공유의 경험들을 포괄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의 형성이나 전승이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곧장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전달·평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이 핵심이 되며, 특히 그 실천은 생활적·일상적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한국문학의 전통 역시도 문학 텍스트가 아닌, 텍스트를 둘러싼 일종의 실천 행위에

그 핵심이 위치하며, 그 실천은 문학 역시 문화의 일부란 점에서 생활적·일상적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통시적으로 오래 유지되어 온 어떠한 형식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실천할 때 유효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필요와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강제될 수는 없다. 즉, 문화로서 전통은 무조건 알아야하고 그 가치가 전제된 당위가 아닌, 그 필요성이 우리의 실천을 통하여 입증될 때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개념이다. 특히 문학은 ‘나’와 ‘세계’의 관계맺음을 언어로 드러내는 예술로, 그 관계맺음의 실천이 꾸준히 이루어져 시대별로 가치가 공유되고 재평가되어 내려온 실천 형식이 있을 때 그를 한국문학의 전통·문화⁵⁾라고 재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문학의 전통·문화는 특정한 실천의 원리·형식을 통해 내용적 특수성을 갖추면서도, 실천의 양상이 상황맥락에 따라 세 부적으로 다를 수 있고 그로써 변화가 가능하다는 성격을 만족한다.

정리하자면, 한국문학의 전통·문화는 꾸준히 시대별로 그 실천이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 그 가치와 영향력이 공유되고 재평가·재구성되는 것이다. 이에 한국문학의 전통·문화는 과거적·고정적인 것이 아닌, 현재적·연속적인 성격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전통·문화로부터 출발할 때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지식 습득, 혹은 텍스트 해석·비교로 귀결되던 전통교육을 벗어나, 전통을 학습 세대가 주체로서 직접 실천하고 재구성하는 교육의 설계를 시도해볼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선 어떤 실천을 동반할 수 있는지, 그간 한국문학의 전통 요소의 하나로 다루어졌던 흥(興)을 전통·문화로서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5) 단순히 문화 양식 중에서 과거의, 혹은 과거로부터 꽤 오래 이어져 온 것을 의미하는 ‘전통문화’와 구분하여, 문화의 성격으로부터 시사하여 재개념화한 전통을 가리키기 위해 ‘전통·문화’란 용어를 사용한다.

IV. 한국문학 전통·문화로서 흥(興)의 검토

더불어 한국문학의 전통·문화는 문학적인 하위의 여러 유형들을 분석할 수 있는 구심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이것은 한국문학의 전통·문화가 어떠한 문학적인 것(what)으로서 실천되는지, 어떤 원리(how)로 실천되는지에 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때 미시적인 문학의 한 요소, 가령 특정 소재나 표현법 혹은 명제로서 가치관이나 태도 등은 앞서 말한 전통·문화의 입체성·실천성을 드러내기 어렵다. 위의 성격들을 만족하기 위해 한국문학의 전통·문화는 보다 거시적으로 문학과 접점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한국문학의 전통·문화를 ‘문학적 소통’⁶⁾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적 소통은 전방위적인 문학 현상에 걸쳐 공시적-통시적인 다층적인 방면에서 일어나며, 주체의 행위로서 실천된다. 문학의 생산이나 수용과 같은 거시적인 문학 현상을 가로지르는 행위는 ‘누군가(창작주체/독자)’가 ‘무엇(대상/텍스트)’을 이해하는 것에 기초하는데, 이는 상호 간의 소통적인 관계에 입각한다. 생산 행위의 측면에서 문학적 소통은 앞서 말한 문학의 본질로서 ‘나’와 ‘세계’의 관계맺음의 소통을, 수용 행위의 측면에선 텍스트를 통해 전달되어 동시대의 의도된 독자와의, 혹은 시간의 간격에 의해 멀리 떨어진 독자와의 소통을 포괄한다. 이때 정보의 정확한 전달을 주로 목적하는 일반적 소통과 달리 문학적 소통의 주 질료는 심미성으로 이해되는데(권오현, 1992), 이 심미성이 맥락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고 다가치적인 성격을 띠며 따라 문학적 소통은 아주 균질하게 이루어지진 않는다(Schmidt & Hauptmeier, 1989/1995).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문학의 전통·문화 역시

6) 여기서의 문학적 소통은 해석·감상을 위한 텍스트-독자 간의 소통이 아닌, 문학의 생산-전달-수용과 같은 전반적인 문학 행위 차원에서 일어나는 소통을 가리킨다(권오현, 1992: 4-6).

그 가치와 의미가 실천에 의해 지속적으로 소통되어 연속되어 간다는 측면에서 ‘문학적 소통’으로서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때 행위로서 소통을 분석할 때 문학적 소통은 언어란 소통 도구를 토대로 심미성을 전달하며, 이때의 언어는 문학적 언어이다(Schmidt & Hauptmeier, 1989/1995). 사실 문학적 언어를 통해 소통되는 심미성이 무엇인지는 따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정도의 문제이지만, 그 이전 문학적 언어(표현)와, 더하여 문학적 요소, 행위로 이루어지는 문학적 소통의 기본 자질에 주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선 일단 우리가 직관적으로 문학적이라 인식하는 그러한 자질들을 중심으로 흥(興)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런 후에 흥이 문학적으로 소통됨에 따라 전달되는 심미성의 본질과 형성·전달의 원리 등을 논하는 작업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흥(興)⁷⁾은 한(恨), 자연친화적 태도, 해학·풍자 등과 함께 한국의, 한국 문학의 중요한 특질로 오래 인식되어 왔다. 흔히 한국인을 ‘흥의 민족’이라 이야기할 만큼, 흥은 다소 보편적인 의미역을 지니면서도 한민족의 전통적 기질처럼 여겨진다. 교육에서도 흥은 그 특유의 긍정성으로 인해 교육할 가치가 있는 전통 요소로 선택되어 오랜 기간 등장하였다. 하지만 워낙 대중적이고 친숙한 개념이다보니 흥을 진지한 문화의 하나로 다루기보단 단순한 일상적인 오락이나 유쾌함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김혜진·김종철, 2015: 88-89). 이는 흥을 대략의 성격만 넓게 정한 후 그 용어의 사용 역시 많은 영역에서 중구난방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흥은 분명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문학의 전통·문화로서의 성격을 초점화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⁸⁾

7) 여기서의 흥은 한시(漢詩)의 표현법 및 미적 원리로서 『시경(詩經)』에서 유래한 시작(詩作)법의 개념이 아닌, 국문시가의 정서로서 흥을 가리킨다. 여기서의 흥은 한시(漢詩)의 표현법 및 미적 원리로서 『시경(詩經)』에서 유래한 시작(詩作)법의 개념이 아닌, 국문시가의 정서로서 흥을 가리킨다.

8) 이때 한국문학의 전통·문화라면 ‘한국’의 특수성이 갖는 의미의 해명 역시 중요하나, 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흥을 “재미나 즐거움을 일어나게 하는 감정”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는 흥의 본체가 ‘정신적인 작용’에 가까움을 가리킨다. 흥과 관련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에는 분명 ‘흥에 겨운 몸짓’이나 ‘춤’, ‘환호성’과 같은 신체적 요소들이 있지만, 흥의 기본은 우리의 내면이 융기(隆起)하는 정신적·심적 작용이다. 동양 미학으로서, 어떤 대상에 구현된 가치가 본질을 찾아내려는 주체의 심적 작용을 풍류심(風流心)이라 규정할 때, 현실적이고 긍정적이며 밝음의 작용에 기반하는 풍류심을 흥이라 보기도 한다(신은경, 1999: 85-89). 미적으로 흥은 긍정적인(밝은) 방향으로 상승하는 정서와 관련되며, 이 정서의 외적인 발산과 나눔이 전제된다(신은경, 1999: 106). 즉, 흥은 정서와 관련해 나름의 미적 특징·심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상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주체의 실천적 의지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때 정서와 관련한 작용으로서 흥은 한시(漢詩)의 시작법으로서 ‘흥(興), 비(比), 부(賦)’를 말할 때의 흥과 함께 살펴볼 수도 있다(이난수, 2011). 표현수법으로서 흥은 ‘다른 사물을 언급하고 (그로부터) 읊고자 하는 말을 이끌어내는’ 수법으로, 시인이 본 주위 사물·경물을 먼저 묘사한 후 서정적인 내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통 인식된다(김근, 2007: 257). 물론 시작법과 정서적 작용으로서 흥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겠으나, 사물·경물로부터 서정적 내용을 유도한다는 것은 곧 그들로부터 상승의 정서를 구축해 접근해가는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이처럼 흥의 핵심을 ‘내적인 상승 정서의 구축과 그 발산’으로 바라볼 때, 흥은 단지 대상으로부터 주체에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축·발산이란 주체의 의지적 실천 행위에 의해 완성되며 이때 그러한 실천은 ‘문학적’ 성격을 띤다. 문학적 성격의 실천은 곧 문학적 소통과 통하는데, 우

당 작업은 새 지면에서 심도 있게 다룰 정도의 것이며 우선 ‘문학’에 집중해 논의를 전개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생략한다.

선 흥이 생성되어 가는 단계인 주체와 대상이 만나 소통하는 과정에서부터
선경후정(先景後情)이란 문학적 관조-묘사의 작업이 자리하게 된다.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는 夕陽裏에 띄어 있고
綠楊芳草는 細雨중에 흐르도다
칼로 돌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이 物物마다 현스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嬌態로다

-정극인, 〈상춘곡(賞春曲)〉中

〈상춘곡〉은 봄을 완상하며 즐기는 풍류생활과 흥취를 노래한 대표적인
가사(歌辭)이다. 위 부분은 서사에서 화자가 자신을 풍월주인(風月主人)으로
칭한 후, 머물고 있는 자연공간이 봄을 맞이한 것을 관조하고 묘사하는 장면
이다. 흥은 주체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현듯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흥을 일으
키는 가벼운 상승감은 외부의 자연공간에서 오는 자극에 바로 일어나지만,
흥을 완전히 만끽하기 위해서 그 자극을 세심히 관찰해 이해하고 언어적으
로 기록해 지속적으로 음미해야 한다. 위 화자는 봄 풍경의 색감이 주는 시
각적 자극과 새소리의 청각적 자극에 반응하여 내면이 들뜨는 상승감을 느
꼈지만, 그 자극과 상승감을 일회적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관조한 후 문학적
수사(修辭)를 동원하여 묘사하였다. 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화자는 관조·묘
사한 바를 바탕으로 흥의 작용을 이어나가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른다.⁹⁾

이때 자극을 주는 대상과 자극을 받아들이는 주체 간의 소통 관계는 주
로 상상적 관계보단 현실적 관계를 지향하는데(신은경, 1999: 108-109), 이

9) 物我一體어니, 흥이이다를

는 흥이 상상적 세계의 구축이나 언어의 동원으로 현실을 전복(顛覆)하거나 이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생생한 현실에서의 충만감을 통해 미감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의 대상들을 그대로 옮겨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면에 가하는 자극과 그를 통해 변화하는 내면을 그려내야 하기에 흥은 주로 문학적 시선을 통한 관조와 문학적 언어를 동원한 묘사로서 그 생성의 실천이 이루어진다.

한편 흥은 주체가 능동적으로 작용을 이끌어어나가는 가운데 정서라는 문학적 결과로 맺어진다. 비슷하게 정서로 소개되는 한(恨)과 비교할 때, 흥은 상대적으로 정서로 다다른 가운데 그 작용의 목적지향성이 약해 보이기도 한다.¹⁰⁾ 그러나 흥에서 역시 주체는 앞서의 관조·묘사를 통해 외부 자극과 자신의 내면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 함과 동시에 그것의 의미를 나름대로 결정하고자 한다. 즉, ‘나는 왜 마음이 들뜨고 있으며,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여러 맥락을 고려해 마련하려는 목적지향적 사고를 통해 흥을 정서로 맺는다.

보리밥 찢는 물을 알마초 머근 後에
바빻 굿 물 ㅁ의 슬ㅁ지 노니노라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 윤선도, 〈만흥(漫興)〉 제2수

水國에 ㅁ을히 드니 고기마다 슬져 인다
萬頃澄波에 슬ㅁ지 容與하자
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秋詞 제2수

위 두 작품에서 화자는 초장 및 중장 초반부에서 외부의 대상이 뿔어내

10) 한의 경우 현실에서 이루기 힘든 욕망이 빚어낸 갈등에 기초하기에 그 욕망과 모순을 해소하고자 하는 주체의 목적의식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오세영, 1976).

는 자극을 인식하고, 이를 한껏 누리며(‘슬꺠지’) 내면의 상승 작용을 극치로 이끌어간다(신은경, 2002: 262).¹¹⁾ 그러면서 상승 작용의 의미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반추하여 종장에 결론을 내리는데, 그 의미는 떠나온 곳(‘人間’) 혹은 미련(‘너나쁜 일’)을 벗어나 밝음·陽의 기운이 가득한 지금 현실에 머물게 된 만족감 내지는 해방감으로 결정된다. 일차적인 상승감이 의미화 작업을 거쳐 결정체로서 정서로 맺어진다. 정서는 대개 일차적·즉각적인 감정과 구분하여, 지적 사고의 하나이자 감정의 질서화·체계화된 형태를 가리킨다(김대행, 1995: 18). 이때 정서의 질서화를 주체의 감정·기분과 대상이 가진 정취 간 소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고정희, 2013: 272), 흥이 정서로 맺어짐 역시 대상이 가진 긍정적 정취와 그를 받아들이는 주체의 상승감, 그리고 주체가 처한 상황맥락이 소통하는 가운데 의미를 지향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의미화 과정을 거쳐 정제된 정서로서 흥은 오랜 영향력을 지닌다. 그 정서는 문학 텍스트에 흔적과 함께 담겨, 텍스트를 통해 언제든 재차 환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흥을 생성한 같은 주체라도 텍스트를 접할 때마다 새로운 감정 상태 혹은 상황맥락 속에서 흥을 재환기하게 되며, 그럼으로써 소통은 그 양상이 조금씩 변화하며 지속된다. 또한, 정서는 작가와 대상 간의 소통에서 비롯해 텍스트에 기록되는 일차적 정서뿐 아니라 해당 텍스트를 접한 독자에게 환기되는 이차적 정서를 아우르는데(고정희, 2013: 273-274), 이것은 곧 흥이 텍스트를 타고 사회적으로도 소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작가와 상대적으로 유사한 외적 대상과 상황맥락에 기반한 당대의 독자들은 텍스트에 형상화된 흥의 작용을 전유해 주로 공감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한편 작가와 시공간적 거리가 큰 독자 역시 텍스트를 접해 흥의 작용을 전유할 수 있겠으나 이젠 작가-독자 간의 간격만큼 작용에 대한 재평가와 변화의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11)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슬꺠지’는 즐거운 일을 아쉬움 없이 하고싶은 만큼 맘껏 누리려는 심적 상태를 강조한다. 그로써 가득한 만족감과 기쁨, 편안함을 표현한다.

이처럼 흥은 생성 단계에선 문학적인 관조와 묘사, 그리고 의미화라는 행위를 통해 정서로 맺어지고, 수용 단계에선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재환기된다. 우리가 문학적이라 인식하는 행위와 요소들을 동반해 흥의 작용 속에선 다양한 문학적 소통이 일어난다. 물론 그 소통 속에서 재구성되는 흥의 심미성이란, 내면의 상승 작용 그 이상으로 구체화되어야겠지만, 우선 흥이 문학적 소통을 위한 자질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 흥은 지속적으로 음미할 수 있는 현재적이면서도 소통에 전제된 맥락에 따라 조금씩 양상이 변화할 수 있는 전통·문화로 자리해갈 수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한국문학의 전통교육의 발전적 논의를 위해 구체적인 교육적 설계에 앞서 전통의 개념부터 다시 살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한쪽으론 특질로서 결속이나 접합을 내세우는 내용적 개념이, 다른 한쪽으론 변화와 지속을 내세우는 ‘살이있는 전통’으로서의 성격적 개념이 혼재하는 전통을 ‘문화’를 구심점으로 재개념화하고자 했다. 문화를 교육하는 대상으로서 연구한 문화적 문식성 연구의 흐름에 따라, 면(面)으로서의 입체성과 실천성이 핵심 성격으로 자리하게 된 문화를 중심으로 전통·문화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또한, 문화적 성격을 만족하면서 전통·문화가 문학적으로 갖는 구심의 역할을 문학이 갖는 심미성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문학적 소통’으로 살피고자 했으며, 구체적으로는 흥(興)이 그 작용상 문학적 소통이 되기 위한 기반으로서 문학적 자질들(언어·표현, 요소 등)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흥은 생성-수용의 과정에서 문학적인 관조·묘사를 기반으로 문학적 요소인 정서로 맺어지며,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지속적으로 환기된다는 점에서 그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하나의 전통·문화로서 흥의 교육적 가치 역시 재차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으로서 문화는 ‘배울 가치가 있다’는 교육적 당위를 항상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민족적·국가적 정체성을 강조하던 차원에서 문화는 한 집단의 생활양식의 결정체로서 집단 간 결속을 강화하고 후대를 사회화는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필요했다. 하지만 점차 다양한 형태의 집단과 가치관으로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문화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강제적 필요성보단, 배울 만한 것으로서 일종의 현대의 생활양식에 귀감을 줄 수 있는 대체(代替)적 내지는 교훈적 가치를 내세울 수 있다. 특히 근현대와 그 이전 시기의 문화적 경계가 상당히 이질적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의 경우,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어떠한 전통·문화란 특히 전자도 중요하겠으나 후자의 차원에서 더욱 현대인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흥 역시 일회적으로 소비되는 강렬한 자극에 주로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에, 보다 오랜 교감과 스스로의 감정을 질서화·의미화하는 작업으로 지속적인 충만감을 선사하는 대체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한국문학의 전통교육은 학습자를 주체로 놓고 그 실천이 구조화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첫 단계로 전통교육을 위한 전통의 재개념화를 논하는 한계에 그쳤으나, 연구의 완성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후속 논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선 전통·문화의 문학적 소통으로서의 성격과 그 본질인 심미성을 보다 치밀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학적 소통으로서 각 전통·문화들의 자질 확인을 넘어서, 그 소통의 원리와 각각(공시적-통시적)의 소통 상황·양상을 실질적인 자료들을 통해 확인하여 구체적인 교육 설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시작으로 우선 전통을 재개념화하고자 한 본 연구의 시도가 한국문학의 전통교육이 그 이름에 걸맞게 현대 학습자들에게 친숙하고 가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21. 7. 31. 투고되었으며, 2021. 8. 15. 심사가 시작되어 2021. 9. 13.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고정희(2013),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시공간적 거리감, 전유, 정서를 중심으로』, 서울: 소명출판.
- 권대광(2017), 「문학 교육의 전통론과 문화정체성 교육」, 『교육연구』 68, 9-30.
- 권오현(1992), 「문학소통이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근(2007), 「賦·比·興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 『중국어문학지』 25, 255-285.
- 김대행(1995), 『고려시가의 정서』, 서울: 개문사.
- 김동형(2013), 「가다머의 전통과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21세기정치학회보』 23(3), 21-43.
- 김혜진·김종철(2015), 「상호 문화적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의 ‘홍’ 이해 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2(1), 79-111.
- 류수열·김세림·김형석(2018), 「고등학교 문학 영역의 전통과 특질 관련 성취기준의 교재와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학교육학』 61, 9-43.
- 박남희(2007), 「문화적 기억과 전통, 그리고 학습」, 『문화예술교육연구』 2(1), 1-17.
- 박은진(2015), 「국어교육의 목표로서 문화적 문식성 개념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연구』 57, 133-168.
- 박은진(2018), 「문화적 문식성 교육에서 공유 모델 구현의 방향」, 『인문사회21』 9(4), 221-236.
-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15, 23-54.
- 서보영(2014), 「고전소설 변용을 통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연구」, 『국어교육연구』 33, 75-101.
- 서유경(2009), 「관소리를 통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연구」, 『관소리연구』 28, 171-196.
- 성기옥·김수경·정끝별·엄경희·유정선(2004),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서울: 소명출판.
- 신은경(1999), 『풍류, 동아시아 미학의 근원』, 서울: 보고사.
- 신은경(2002), 「슬카지와 와비: 윤선도와 바쇼오의 미적 세계」, 『국어국문학』 131, 253-282.
- 오세영(1976. 12.), 「한의 논리와 그 역설적 의미」, 『문학사상』 51, 260-269.
- 윤여탁(2016), 「문학 문식성의 본질, 그 가능성을 위하여-문화, 창의성, 정의(情意)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51, 155-176.
- 이난수(2011), 「심미 정서로서의 ‘흥(興)’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면(2001), 「새로운 한국문학 연구를 위한 도전으로서의 문화론-문화론의 위상과 전망 그리고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민족문화사연구』 18, 41-60.
- 최고원(2009), 「가다머 해석학의 보수성 논란에 관하여」, 『철학논총』 55, 385-405.
- 최원규(1983), 「한국문학의 전통론서론」, 『한국언어문학』 22, 245-256.
- 황혜진(2005),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고전소설과 영상변용물의 비교 연구」, 『국어교육』 116, 375-407.
- Gadamer, H. G. (2012), 『진리와 방법 2』, 임흥배(역), 파주: 문학동네(원서출판 1960).
- Schmidt, S. J. & Hauptmeier, H. (1995), 『구성주의 문예학』, 차봉희(역), 서울: 민음사(원서출판 1995).

판 1989).

Warnke, G. (1999), 『가다머-해석학, 전통 그리고 이성』, 이한우(역), 서울: 민음사(원서출판 1987).

한국문학 전통 교육을 위한 ‘전통’ 개념의 고찰

— 흥(興)을 중심으로

류연석

한국문학의 전통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은 혼란한 전통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전통은 우리의 유구한 무엇을 의미하는 내용적 개념과 변화·적용한다는 철학적 배경에 기반한 성격적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이 두 개념을 조화하면서 각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전통을 개념화하고자 할 때, ‘문화’를 그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다.

문화를 교육한다는 전제로 출발한 문화적 문식성의 연구 흐름에 따라 문화는 통시적(수직적)인 양태와 공시적(수평적)인 양태를 아우르는 면(面)의 성격과, 실천성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문화의 성격을 기반으로 재개념화한 전통·문화는 실천적·연속적인 성격을 갖추며 동시에 하위 특질들을 묶을 수 있는 문학적인 구심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한 전통·문화의 가능성을 ‘문학적 소통’과 관련해 살필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히 한국적인 전통 요소의 하나로 인식되어 가치가 있으나, 진지한 고찰이 부족했던 흥(興)을 전통·문화로서 검토하고자 했다.

소통의 실천 속에 문학적인 가치를 재구성하는 문학적 소통의 자질은 문학적 언어, 요소, 행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흥은 외부 대상과의 만남으로 일어나는 내적 상승 작용을 문학적으로 관찰·묘사하고 정서로 의미화하며 텍스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기된다는 점에서 그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 소통으로 전통·문화의 본질과 구체적 원리, 양상의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문학 전통교육의 발전적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문학교육, 전통교육, 전통, 문화, 흥(興), 문학적 소통

A Consideration on the Concept of “Tradition” for the Korean Literature Education

— Focused on ‘Heung(興)’

Roo Yeonseok

The first step for improving the education of traditional elements of Korean literature begins with re-conceptualization of “tradition”. This term can be confusing, as it includes a concept that refers to “something” in which we have long lived and a concept based on a philosophical background that proves tradition’s potential for change. When we harmonize the two concepts and re-conceptualize “tradition”, “culture” can be the focal point.

According to the cultural literacy, culture is emphasized by the form of the vertical(historical)-horizontal(contemporary) aspects and its practicality. Then the re-conceptualized term “traditonal-cultural elements” also reflect those aspects and do the role of literary-centrifugal point of lower things. And We can find the possibility of the term by the concept “literary communication”.

Some literary values can be always reorganized by that communication, and the communication is operated by factors of literary qualities. “Heung(興)” as a mental effects, is also operated by those literary factors such as literary sense and the language expression which raise forming of literary emotions, and the text(work) which can deliver emotions. When we can give shape to the concept and the principle of the term above, there would be the improvement of Korean literature education which deals tradtional things.

KEYWORDS Literature education, Education for tradition, Tradition, Culture, Heung(興), Literary communication